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기원하며

통상산업부 차관보 정 해 주

국가전략산업인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업계간 협력과 교류증진의 구심역할을 수행하는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창립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세계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는 하나의 열린 시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해외는 물론 국내시장에서까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산업부문의 기술개발과 함께 한정된 자본, 인력, 기술등 모든 생산요소를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문으로 원활히 이동시켜 멀티미디어, 고집적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생명공학, 항공우주분야와 같은 고도기술 집약산업으로 구조조정이 단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미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은 우리나라가 산업발전 단계상 도전해야 할 분야인 동시에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표적 기술집약 산업으로서 정부에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재 장기 첨단 대형 기술개발사업으로 중형항공기 및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중간의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은 지난해 3월 한·중간에 중형항공기 개발을 합의한 이래 국내 개발체계를 확립하고 현안사항인 제3협력선 선정, 최종조립장 위치,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3협력선 선정과 관련 미국, 프랑스, 독일등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작사들이 참여경쟁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

고 있어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앞날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은 지난해 국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해외공동개발기관으로 미국 TRW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체제를 완료하고 99년 발사와 60% 이상의 위성체 국산화를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 기술연수 등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이러한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설계, 시험평가, 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중형항공기 엔진개발, 헬기개발 등 후속사업을 추진하여 항공기산업 자립화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는 대형여객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Major-Partner로 참여하는 등 세계 10대 항공기산업국으로 진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주산업은 국내 개발능력 확보로 통신, 탐사등 국내수요의 자체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저궤도 통신위성 등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위성체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해주 차관보가
통상산업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화, 계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내 항공우주 품질인증체제를 정비하고 완제품 및 관련부품의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등 주요 항공우주 선진국들과 상호 감항성인증협정을 체결해

최근 산·학·연 전문가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항공우주산업 장기발전 전략에 의하면 항공기산업은 앞으로 10년간 년평균 26.5%씩 성장, 2005년에는 국내생산액이 100억불 수준에 달해 세계 10위권의 항공기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주산업도 2005년에는 국내 위성수요의 자급은 물론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발사체 개발능력도 확보함으로써 세계 10대 우주산업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기전략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와 정부는 물론 기업, 근로자 등 항공우주 관계자 모두의 배전의 각오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세계 10대 항공우주산업국으로의 목표와 전략에 바탕을 두고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현재 60여개사인 항공우주 관련기기, 부품업체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유도하여 부품산업체의 저변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최종조립등 과당경쟁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

나갈 것입니다.

셋째, 중형항공기 및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부품국산화 추진등 소재·부품 국산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남 사천에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조립업체, 부품생산업체, 연구시설 등을 유치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제적인 『서울에어쇼 '96』을 개최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고, 동시에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사이래 최대의 항공우주산업 발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민·관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선진항공우주산업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